# 日, 30년간 불교계 인구 4천만 명 감소

### 일본 종교 소멸 현상 눈길
### 불교계 심화에 우려 확산
### 기독교 인구는 5만명 증가

박영빈 객원기자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특히 불교계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 '야후재팬 뉴스' 등의 매체들은 일본의 종교소멸 현상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전세계적으로 탈종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부터 '사찰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한 집안이나 마을 전체가 특정 사찰에 소속 되어온 전통적인 신도관리 체계인 단가제도(檀家制度)에서 기존의 신도들이 이탈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1995년 옴 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으로 인해 탈종교화 혹은 종교에 무관심한 성향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에 소재한 사찰은 약 7만 7천여개소, 그러나 이중 30%이상의 사찰이 신도 감소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존속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의 종교학자 시마다 히로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본은 종교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 이중 특히 불교가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종교인구 집계를 분석한 결과, 30여 년 전 8천 7백만 명 가까이 집계되었던 불교계 인구는 현재 약 4천 7백만 명으로 4천만 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신도와 불교가 강하게 연결된 일본의 종교특성상 불교와 신토 두 종교에 모두 집계된 인원이 다수일 것으로 본다. 만약 순수하게 불교계의 감소만을 본다면 감소율은 최대 45%까지 계산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편 기독교계 인구는 5만 명이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시마다 교수는 불교계 인구가 급감하게 된 계기로 "1980년대 경제호황과 함께 옴진리교를 필두로 불교에 기원을 둔 다양한 신흥종교들이 난립했다"며 "이후 전통적인 불교교단에 속한 신자들이 약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마다 교수는 당시 신흥종교와 함께 기성교단에 대한 반대로 재가단체들도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90년에 일련정종에 속해있던 재가단체 창가학회가 파문되면서 1천 6백만 명 가량의 신도들이 일련정종에서 떠나 간 것으로 집계돼 불교계 인구가 격감한 결정적 원인으로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련정종과 창가학회는 신도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는 4천만 명이 감소됐지만, 실질적으론 2천 3백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나 큰 감소폭이다"라고 현황을 분석했다.


탈종교를 넘어서 종교소멸을 향해가고 있다는 일본, 불교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이밖에도 불교계 인구가 감소된 원인은 다양하게 꼽히고 있다. 타종교로의 개종과 같은 이유보다, 전통적인 단가제도에서의 탈퇴, 신도교육의 약화, 불교적 신심의 결여와 같은 교계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례의식을 사찰에 전담하는 일본 불교의 특성상, 장례에 드는 제반 비용이 부담이 되어 재적사찰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꼽혔다. 한 통계는 시다림을 포함한 장례의식 전체에 평균 230만엔(한화 약 2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혔다,

현재 일본불교계에서는 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다양한 타개책을 내놓으며 불교의 이미지 쇄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사회 전반의 탈종교 현상에 대한 불교계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 플라스틱 재활용 나선 미얀마 스님

###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위해


사야도우 우 오타마사라 스님.
사진출처=swissinfo.c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창궐로 인해 전 세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한 스님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운동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9월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의 저명한 승려이자 명상교사인 사야도우 우 오타마사라(Sayadaw U Ottamasara) 스님은 매일 새벽 탁발(托鉢)을 위해 마을로 나갔을 때 페트병과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이 길거리에 쌓여가는 것을 목격한 후 이 같은 활동을 결심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서만 매일 약 2500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시 당국에 의한 재활용도 매우 산발적으로 이뤄져서 대부분은 버려지거나 태워진다.

사야도우 스님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리에 버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포장음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포장 용기로 인해 쓰레기가 불어났다는 얘기다.

스님이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기부' 다. 스님은 "주민들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부' 받아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님은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이 고귀한 활동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더 깨끗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이 2008년 양곤에 설립한 불교계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타바르와 센터(Thabarwa Center) 내부에는 현재 재활용 작업장이 마련돼 있다. 매일 끝없이 공급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곳에서 처리돼 차양이나 타이어, 음식 보관용기 등으로 재활용된다.

스님은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낭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가동한 3개월 동안 약 20만 개 페트병, 즉 약 2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됐다. 약 1만 달러를 절약한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

로이터는 "스님의 재활용 추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압도적"이라며 "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매일 수천 개의 페트병을 기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550년만에 부활한 합동 기도회

### 日 천태종 · 신사, 교토서 봉행
### 역병 · 재난 종식위한 전통의식

코로나 19의 종식을 발원하며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曆寺)와 교토의 유서 깊은 신사 기타노 텐만구(北野天滿宮)가 합동 기도회를 봉행했다. 550여 년 만에 부활한 합동기도회의 모습을 9월 5일 '마이니치 신문'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9월 4일 교토시에 소재한 키타노 텐만구에서 열린 '키타노 고료에(北野御霊会)' 는 550여 년 전 맥이 끊긴 기도회다. 987년 처음 봉행된 이 기도회는 불교와 신토(神道)가 함께 주관해왔다. 기도회에 모셔지는 키타노 텐만구의 제신(祭神), 텐진(天神)은 학문의 신임과 동시에 역병과 재난을 주관하는 신으로 불교와 신토 양측이 신을 위로하여 재해가 없길 발원하는 것이다.


텐만구 본전을 향해 입장하는 스님들과 신관들. 사진출처=교토신문

텐만구 측은 "200여 년 전 신토와 불교를 분리하는 '신불분리령' 이 있기 전까지 텐만구는 엔랴쿠지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스님들이 제례를 주관해 왔다" 며 불교계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했다. 이번 기도회의 부활도 텐만구 측이 먼저 엔랴쿠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랴쿠지와 텐만구 측은 "오는 2021년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과, 매 25년마다 텐만구에서 열리는 대제례가 7년 후에 열리는 것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서 550여 년만에 기도회를 부활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본 기도회의 최초의 목적이 역병과 재난을 종식시키기 위함인 만큼, 현 상황이야 말로 마음을 모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한다"며 기도회를 부활시키는 의의를 밝혔다.

오전 10시 텐만구의 본전에서 열린 의례는 신도와 불교의 의례가 번갈아 봉행됐다. 엔랴쿠지 측은 특별히 현 천태종의 종정인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이 법주로 나섰다. 〈법화경〉의 내용을 문답하고 강설하는 의식인 '산문팔강(山門八講)' 을 중심으로 범패와 염불이 이어졌다.

텐만구를 대표하는 타치바나 시게토쿠 궁사(宮司)는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다. 오랜 세월 끊어졌던 전통이 부활해 마치 꿈만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엔랴쿠지와 키타노 텐만구는 뜻깊에 부활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 달라이라마 "기후변화, 조속한 조치 필요"

### G7 정상회의서 특별 당부


달라이라마가 G7 연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가적 행동을 강조한 내용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세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조속하고 단합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 도어(Buddhist door) 등이 9월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G7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의 입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세계의 지붕' 인 티베트가 중국 양쯔강과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인도의 브라마푸트라강으로 흐르는 물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아시아 전체에서 강의 근원은 티베트로부터 온다"며 "그런데 티베트에 내리는 눈의 양이 매년 적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호텔을 이용하는 부자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70억 명의 인구 전체를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나의 민족' 이나 '나의 종교집단' 이 아닌 70억 인류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성운대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참된 의미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인가?
불교의 핵심 개념과 교리에 담긴 참뜻, 즉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된 의미를 일상적인 예화와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384쪽/값 16,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시역주

선의 진미를 맛보다!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각종 건축물, 그림, 의례, 불보살, 교리, 경전, 문화, 수행 등, 불교의 핵심 코드들을 알기 쉽게 설명!
도후 지음/29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